

### 유엔, 이스라엘 가자지구 유혈진압 비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끔찍한 폭력이라며 비판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루퍼트 콜빌 OCHR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영토를 지킬 권리가 있지만 살상 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장벽에 시위대가 접근했다는 것은 실탄을 사용할 명분이 못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벽에 접근하는 비무장 시위대를 이스라엘군이 무장 정파 하마스로 단정 지으면서 무조건 실탄을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겨냥해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쏘면서 59명이 숨지고 2천7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보안장벽을 따라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를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를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은 논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며 인권이사회가 편파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UNHRC에서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지만, 이스라엘이 조사단 입국을 거부할 경우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호주 대형슈퍼마켓 '분유 구매 제한' 중국인 사재기 때문

호주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콜스가 분유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산 분유가 온라인으로 중국인들에게 비싼 값에 재판매되는 행태가 계속되자 취한 조치이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콜스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말로 분유가 필요한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지점에 한해 카운터 점원에게 말을 해야만 꺼내주거나 계산대 직원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뒷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콜스는 또한 분유 구매 개수를 1인당 2통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서 개당 35호주 달러(약 27달러)에 판매되는 1kg들이 분유 한 통이 중국인들에게 3배 가

까운 가격인 100호주달러에 재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취해진 것이다. 중국인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호주인 부모들의 우려도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호주에선 지난 2015년에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독신자의 날)를 앞두고 대규모 분유 품절 사태가 발생해 분유회사 벨라미가 나서서 자국민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다른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울워스는 아직은 카운터 직원을 통해서만 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구매 개수만 2통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말라리아 환자 급증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올해 들어 말라리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가 브라질의 민간 의료기관인 오스바우두 크루스 재단이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보고된 말라리아 환자는 5만 명에 육박한다. 재단은 올해 말까지 말라리아 환자 수가 29만3천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라리아 환자가 7년 만에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인다고 정부 당국에 방역 대책 강화를 촉구

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난민이 대거 몰리고 있는 호라이마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 보건 당국은 브라질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난민 가운데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5개국에서 말라리아가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범미보건기구는 지난 2005년 이래 10여 년간 중남미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세를 계속했으나 이후에는 일부 국가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